

새로운 경제시스템 창출을 위한

경제주평

Weekly Economic Review

- 2020년 주요 산업별 경기 전망과 시사점

목 차

■ 2020년 주요 산업별 경기 전망과 시사점

Executive Summary	i
1. 거시경제 및 주요 산업경기 동향	1
2. 2020년 주요 산업별 경기 국면	3
3. 2020년 주요 산업별 경기 전망	5
4. 시사점	26

□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 괄 : 주 원 이 사 대 우 (juwon@hri.co.kr, 02-2072-6235)
 정 민 연 구 위 원 (chungm@hri.co.kr, 02-2072-6220)

□ 경 제 연 구 실 : 【건설】 오준범 선임연구원 (jboh19@hri.co.kr, 02-2072-6247)
 【ICT제조】 민지원 연구원 (jwmin@hri.co.kr, 02-2072-6211)
 【자동차】 류승희 연구원 (shryu@hri.co.kr, 02-2072-6217)
 【철강】 신유란 연구원 (yooran0111@hri.co.kr, 02-2072-6240)
 【유화】 박용정 선임연구원 (yongjung@hri.co.kr, 02-2072-6204)
 【조선】 홍준표 연구위원 (jphong@hri.co.kr, 02-2072-6214)
 【기계】 정 민 연구위원 (chungm@hri.co.kr, 02-2072-6220)

Executive Summary

□ 2020년 주요 산업별 경기 전망과 시사점

■ 거시경제 및 주요 산업경기 동향

(거시경제 동향) 최근 한국 경제는 대내외 수요가 위축되면서 수출과 투자를 중심으로 낮은 성장세를 보이거나 최근 경기종합지수는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 경기 부진이 다소 완화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러나 여전히 다수의 하방 위협 요인이 존재한다. 2019년 3분기 경제성장률은 전기대비 0.4% (전년동기대비 2.0%)를 기록하면서 2019년 경제 성장률 1%대 진입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다. 다만 장기간 하락 추세를 보여왔던 경기 동행 및 선행 지수가 최근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 경기 부진이 심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주요 산업경기 동향) 최근 제조업 생산 증가율이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가운데 서비스업 생산 증가세도 둔화되고 있어 전반적인 산업경기에 회복 모멘텀은 여전히 부재한 상황이다. 제조업 생산은 최근 소폭 증가하였으나 서비스업 생산 증가폭이 축소되고 있다. 또한 제조업의 출고 증가율은 마이너스가 지속인 반면 재고 증가율은 증가세를 보여 제조업 경기는 둔화 국면에 진입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2020년 주요 산업별 경기 국면과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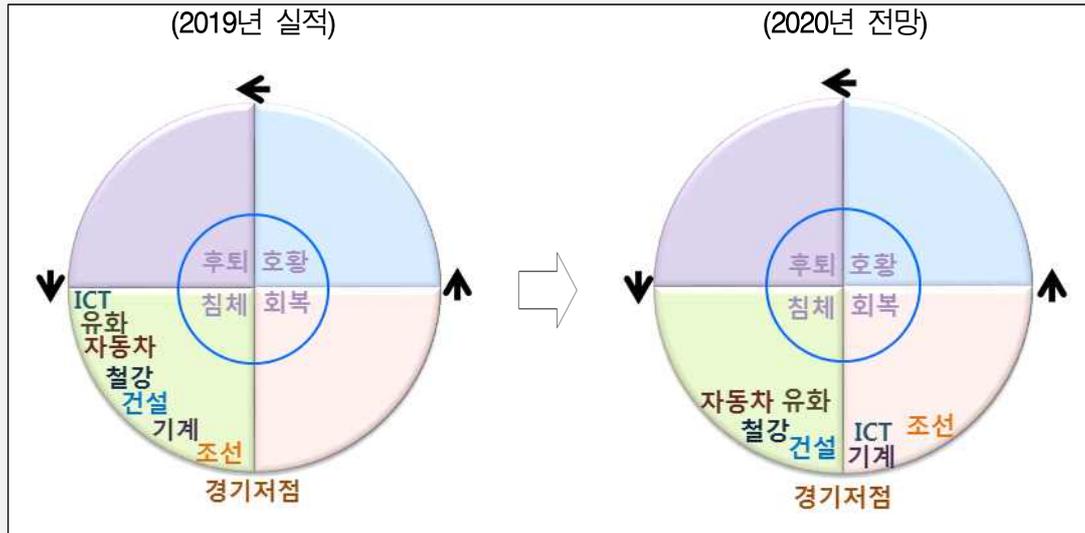
2020년 세계 경제는 신흥국 경기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선진국 경기 둔화가 예상되어 전체적으로 미약한 반등에 그칠 전망이다. 2020년 세계 경기는 2019년 비해 다소 개선되고, 기저효과 등으로 수출 경기는 다소 회복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2020년 반도체 경기 회복이 예상됨에 따라 ICT 산업은 회복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ICT 산업 회복, 설비투자 플러스 전환 등으로 기계 산업은 소폭 반등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규 수주 반등, 건조 단가 상승, 선박 수출 증가세 유지 등으로 조선업은 회복세가 전망되나 개선 수준은 소폭에 그칠 전망이다. 이에 반해 건설업은 민간 및 건축 부문 수주 감소로 침체 국면이 지속되고, 세계 경제 미약한 회복, 수요 축소, 과잉공급 등으로 자동차, 석유화학 산업 역시 침체 국면이 이어질 전망이다. 더욱이, 철강 산업은 국내 주요 수요산업 부진 등으로 경기 침체 국면이 지속될 전망이다.

(침체 - 건설,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건설업) 2019년 건설업은 건설기성액과 건설

수주액이 모두 감소세가 지속되는 모습입니다. **2020년 건설업**은 SOC 예산 확대 등으로 공공·토목 수주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주택 관련 규제 지속 등으로 민간·건축 수주는 소폭 감소가 예상된다. **(자동차)** 2019년 자동차산업은 주요국 경기 둔화에 따른 수입수요 감소 등으로 하반기에 들어 둔화 국면이다. **2020년 자동차산업**은 제한된 세계경기 회복, 환경규제 강화 등으로 자동차 수출 수요가 둔화되고, 부진한 민간소비로 인해 내수수요 또한 둔화될 전망이다. 다만, 신차효과와 더불어 원화 약세 및 친환경차 수요의 증가세가 유지된다면 둔화 폭은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철강)** 2019년 철강 산업은 생산과 출하 감소가 지속되고 재고가 증가하는 등 침체 국면이 지속되는 것으로 보인다. **2020년 철강 산업**은 국내 주요 수요 산업 부진 등으로 철강재 내수 수요가 감소하고 생산도 소폭 감소하는 등 경기 침체 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석유화학)** 2019년 석유화학 산업은 글로벌 수요둔화, 수출단가 하락으로 수출 감소세가 지속 되면서 출하가 감소하고 재고가 확대되는 등 침체 국면이다. **2020년 석유화학**은 글로벌 공급과잉, 중국 성장 둔화, 내수 부진 등으로 침체 국면이 지속되겠지만, 세계 경기 회복 등의 모멘텀은 침체를 다소 완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국내 경기와 전방 수요산업의 회복이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해외 신증설 규모 확대에 따른 공급과잉 등은 수출 확대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회복 - ICT, 조선, 기계) (ICT) 2019년 ICT 제조업은 반도체,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등 3대 주력품목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 다만, 최근 생산 및 출하지수가 소폭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며 부진세가 다소 완화되고 있다. **2020년 ICT 산업**은 전년도 기저효과와 더불어 글로벌 불확실성 완화, 5G 본격 도입, OLED 시장 확대 등 요인으로 소폭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선)** 2019년 조선업은 세계 경기 및 교역의 부진으로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 **2020년 조선업**은 신규 수주 반등, 건조 단가 상승, 선박 수출 증가세 유지 등의 회복세가 전망된다. 그러나 세계 경기의 미약한 회복세 및 국제교역 불확실성 상존 등의 요인과 함께 조선업 경기가 장기간 침체였음을 감안하면 회복 강도는 크지 않으리라고 예상한다. **(기계)** 대내외 경기 여건 악화, 전방 산업 부진, 설비 및 건설투자 부진 등으로 기계 산업의 생산, 출하 증가율이 하락세를 보이고 수출·입 증가율도 모두 마이너스 기록하면서 침체 국면에 있다. **2020년 기계 산업**은 일부 전방 산업(ICT)의 업황 소폭 회복, 설비투자 플러스 전환, 기저효과 등으로 소폭 개선될 전망이다.

< 주요 산업의 경기 국면 >



■ 시사점

2020년 예상되는 주요 산업별 경기 전망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첫째**, 대외 불확실성의 리스크가 국내 경제로 전이되는 것을 차단하고 국내 경기 회복 도모를 위한 신중한 경제 정책이 요구된다. **둘째**, 수출 경기 회복을 위해 수출 품목 및 시장 다변화를 적극 추진하는 동시에 통상마찰 방지에 주력해야 한다. **셋째**, 민간 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기업 환경 개선에 정책적 비중을 높여야 한다. **넷째**, 건설투자 위축을 완화하기 위해서 SOC 조기착공과 공공주택 발주를 확대하고, 시장의 혼란과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민간 주택 시장에 대한 기존 안정화 정책 기조는 유지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국내외 산업 지형 변화에 대응하고, 기존 주력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통해 신성장 동력을 찾기 위한 중장기 산업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1. 거시경제 및 주요 산업경기 동향

(1) 거시경제 동향

○ 최근 한국 경제는 대내외 수요가 위축되면서 수출과 투자를 중심으로 낮은 성장세를 보이거나 최근 경기종합지수가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 경기 부진이 다소 완화될 가능성이 존재, 그러나 여전히 다수의 하방 위험 요인 존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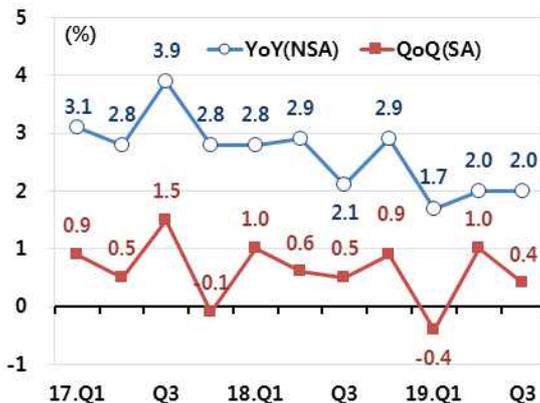
- 2019년 3분기 경제성장률은 전기대비 0.4% (전년동기대비 2.0%)를 기록하면서 2019년 경제 성장률 1%대 진입 가능성이 확대

- 2019년 3분기 경제성장률은 전기대비 0.4% 및 전년동기대비 2.0%를 기록, 수출 및 투자 부진 지속의 영향으로 저성장 흐름이 이어짐
- 경제성장 기여도(%p): 민간소비 0.8, 정부소비 1.0, 건설투자 △ 0.5, 설비투자 △ 0.2, 순수출 △ 0.1 (수출 0.6, 수입 0.7)

- 다만 장기간 하락 추세를 보여왔던 경기 동행 및 선행 지수가 최근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 경기 부진이 심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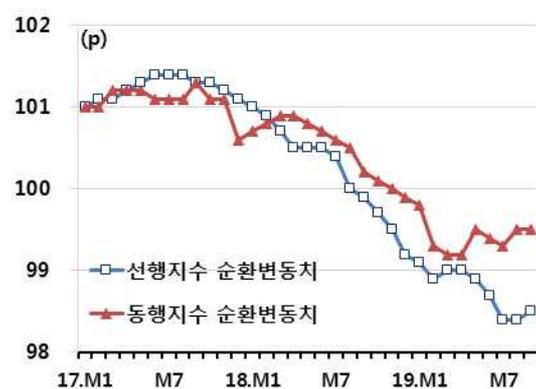
- 현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순환변동치가 2014년 5월 99.2p까지 하락 후 8월 99.5p로 소폭 상승, 9월도 99.5p를 기록하며 횡보하는 모습
- 경기 방향성을 예고해 주는 선행지수순환변동치도 2019년 8월 98.4p까지 하락 후 9월 98.5p로 소폭 상승

< 분기 경제성장률 >



자료 : 한국은행.
주 : 전기비는 계절조정자료 기준.

< 경기 동행 및 선행 지수 순환변동치 >



자료 : 통계청.

(2) 주요 산업경기 동향

○ 최근 제조업 생산 증가율이 낮은 수준에 머무는 가운데 서비스업 생산 증가세도 둔화하고 있어 전반적인 산업경기에 회복 모멘텀은 여전히 부재한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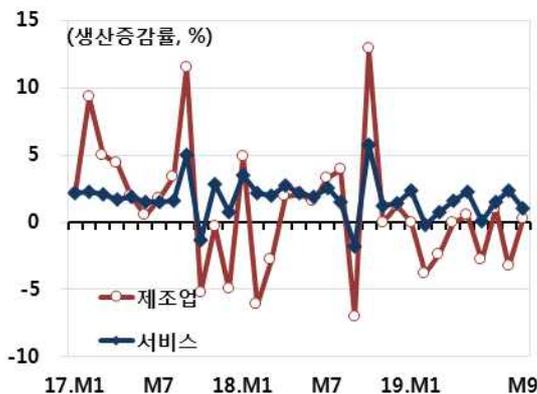
- 제조업 생산은 소폭 증가하였으나 서비스업 생산 증가 폭이 축소

- 제조업 생산증감률(전년동기대비)은 2019년 8월 $\Delta 3.3\%$ 에서 9월 0.2% 로 다소 개선
- 서비스업 생산증감률(전년동기대비)은 2019년 8월 2.4% 까지 상승하였으나 9월에 1.0% 로 둔화

- 제조업의 출고 증가율은 마이너스가 지속인 반면 재고 증가율은 증가세

- 제조업 출하 증가율(전년동기대비)은 2019년 1분기 $\Delta 1.6\%$, 2분기 $\Delta 1.4\%$, 3분기 $\Delta 0.8\%$ 로 마이너스가 지속
- 한편 제조업 재고 증가율(전년동기대비)은 1분기 4.6% , 2분기 6.2% , 3분기 8.4% 로 증가세 지속
- 재고는 증가세인 반면 출하는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둔화 국면에 진입하는 것으로 판단

< 제조업 및 서비스업 생산증감률 >



자료 : 통계청.
 주1) 전년동기대비.
 2) 서비스업 생산은 불변지수 기준.

< 제조업 재고 및 출하 증감률 >



자료 : 통계청.
 주 : 전년동기대비.

2. 2020년 주요 산업별 경기 국면

- 2020년 세계 경제는 신흥국 경기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선진국 경기 둔화가 예상되어 전체적으로 미약한 반등에 그칠 전망이다. 2020년 세계 경기는 2019년 비해 다소 개선되고, 기저효과 등으로 수출 경기는 다소 개선될 가능성이 큼. 한편 2020년 반도체 경기 회복에 예상됨에 따라 ICT 산업은 회복 국면에 진입이 예상. 또한 ICT 산업 회복, 설비투자 플러스 전환 등으로 기계 산업은 소폭 반등할 것으로 전망. 신규 수주 반등, 건조 단가 상승, 선박 수출 증가세 유지 등으로 조선업은 회복세가 전망되나 개선 수준은 소폭에 그칠 전망이다. 이에 반해 건설업은 민간 및 건축 부문 수주 감소로 침체 국면이 지속되고, 세계 경제 미약한 회복, 수요 축소 과잉공급 등으로 자동차, 석유화학 산업 역시 침체 국면이 이어질 전망이다. 더욱이, 철강 산업은 국내 주요 수요산업 부진 등으로 경기 침체 국면이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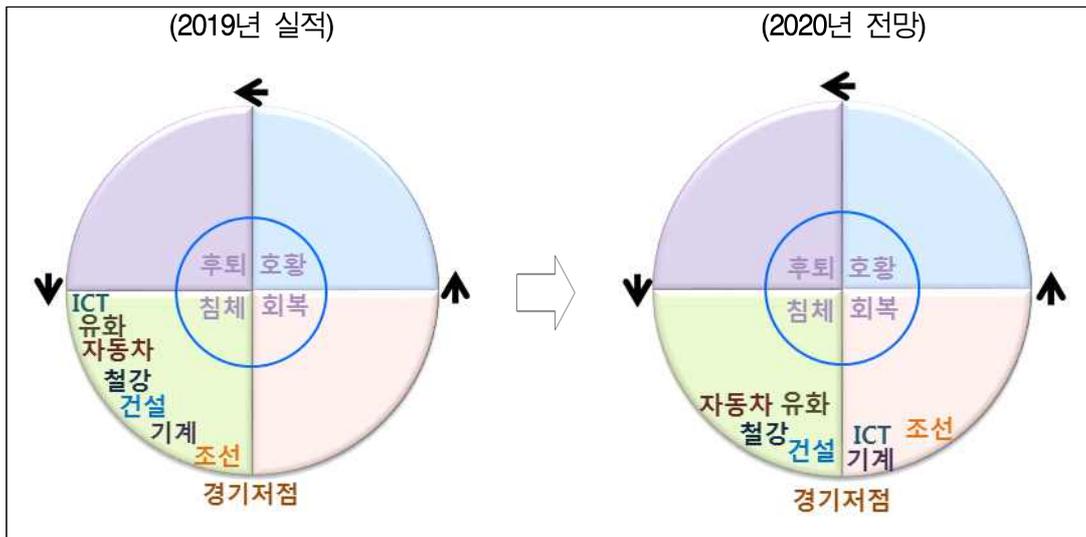
○ (침체) 건설,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 **건설**: SOC 예산 확대와 함께 공공기관 투자 등으로 공공·토목부문 수주는 증가할 전망이나, 부동산 규제 강화, 주택 초과공급 등으로 민간·건축부문 수주는 둔화세 지속 전망
- **자동차**: 제한된 세계 경기 회복 및 국내의 부진한 민간소비로 자동차 산업의 경기 둔화가 지속되나, 신차효과와 더불어 원화 약세 및 친환경차 수요의 증가세 유지 가능성 등이 둔화폭을 다소 완화
- **철강**: 2020년 철강 산업은 주요 수요산업 부진으로 철강재 내수수요 및 생산이 모두 감소하며 불황 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
- **석유화학**: 글로벌 공급과잉, 중국 성장 둔화, 내수 부진 등으로 침체 국면이 지속하겠으나, 세계 경기 회복 등의 모멘텀은 침체를 다소 완화

○ (회복) ICT, 조선, 기계

- ICT: 반도체,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패널 모두 전년도의 기저효과와 더불어 글로벌 불확실성 완화, 5G 본격 도입, OLED 시장 확대 등 요인으로 소폭 회복 전망
- 조선 : 장기간 지속된 세계 경기의 미약한 회복 및 글로벌 교역 불안 요인 상존 등으로 조선업 경기는 소폭 개선에 그칠 전망
- 기계 : 일부 전방 산업의 업황 소폭 회복, 설비투자 플러스 전환, 기저효과 등으로 기계 산업은 소폭 개선될 전망

< 주요 산업의 경기 국면 >



3. 2020년 주요 산업별 경기 전망

① 건설업

SOC 예산 확대와 함께 공공기관 투자 등으로 공공·토목부문 수주는 증가할 전망이다, 부동산 규제 강화, 주택 초과공급 등으로 민간·건축부문 수주는 둔화세 지속 전망

○ (2019년 경기 동향) 건설기성액, 건설수주액이 모두 감소세가 지속되는 모습

- (건설기성) 2018년 감소세로 전환한 건설기성액은 2019년 이후 감소세를 유지하는 모습

- 건설기성액은 2017년 1분기 이후 증가세가 둔화되다가 2018년 2분기 이후 감소세로 전환되고, 2019년 이후에도 감소세가 지속
- 공종별로는 건축기성액이 2018년 2분기 이후 감소세를 유지한 반면, 감소세를 지속하던 토목기성액은 2019년 2분기 이후 증가세로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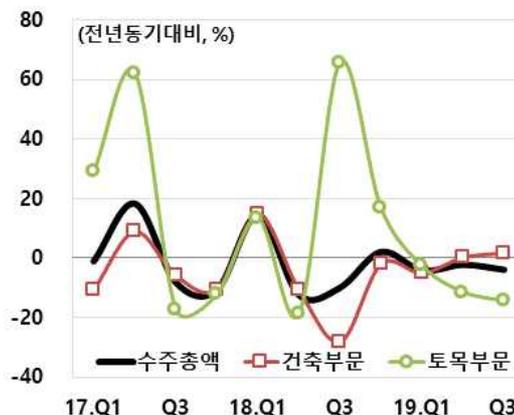
- (건설수주) 건설수주액은 2017년 이후 등락을 반복하면서 변동성이 컸으나, 2019년 이후에는 소폭 감소하는 추세를 유지

- 건설수주액은 2019년 1~3분기 전년동기대비 3.4% 감소하여 2018년에 이어 감소세를 지속
- 공종별로는 건축수주액이 2019년 1~3분기간 전년동기대비 $\Delta 0.9\%$ 로 소폭 감소한 반면, 토목수주액은 기저효과 등의 영향으로 동기간 $\Delta 9.4\%$ 를 기록함

< 공종별 건설기성액 증감률 >



< 공종별 건설수주액 증감률 >



자료 : 통계청, 건설경기동향조사.

주1) 증감률은 전년동기대비 기준.

주2) 건설기성액은 불변금액, 건설수주액은 경상금액 기준.

- (2020년 전망) SOC 예산 확대 등으로 공공·토목 수주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주택 관련 규제 지속 등으로 민간·건축 수주는 소폭 감소가 예상
- (공공·토목) 2020년 정부의 SOC 예산이 증가하고, 생활형 SOC 투자, 국가균형발전 계획 등에 따라 공공·토목 수주는 증가세로 전환될 전망
 - 2020년 SOC 예산은 전년대비 12.9% 증가한 22.3조 원으로 책정되었고, 국회 예산심의 과정 등을 고려할 때 증가폭이 확대될 가능성이 존재함
 - 또한 공공기관 투자 및 정부의 건설형 공공주택 발주 확대와 더불어 생활 SOC 투자, 국가균형발전 계획 등이 공공·토목 수주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민간·건축) 정부의 부동산 및 가계대출 규제 지속, 주택 초과공급 상태 유지 등으로 민간·건축 부문 수주액은 둔화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
 - 2020년 부동산거래 및 보유, 가계대출 규제가 지속되고, 거시경제의 뚜렷한 개선세가 관측되지 않는다는 점 등이 주택공급 여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 또한 서울 및 광역시의 경우 수요의 제한적 증가, 지방권은 공급의 누증으로 인한 주택 초과공급 상태 유지도 향후 수주액 감소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건설업 전망 (건설수주액 기준) >

구 분		2018	2019(E)	2020(E)
주체별	공 공 (조 원)	29.6 (△12%)	27.0 (△ 9%)	29.6 (10%)
	민 간 (조 원)	103.1 (△ 1%)	98.0 (△ 5%)	93.1 (△ 5%)
공종별	토 목 (조 원)	32.2 (12%)	27.2 (△16%)	30.1 (11%)
	건 축 (조 원)	100.5 (△ 8%)	97.9 (△ 3%)	92.7 (△ 6%)
전 체 (조 원)		132.7 (△ 4%)	125.0 (△ 6%)	122.8 (△ 2%)

자료 : 실적치는 통계청, 전망치는 현대경제연구원.

주1) ()안은 전년대비 증감률.

2) 국내 외국기관 및 민자 실적은 제외한 수치임을 유의.

- (주요 현안) 2020년 건설 산업은 지역간 건설경기 격차 확대, 토목부문 수주 기회 확대, 해외플랜트 사업기회 확대 등이 주요 이슈로 부각
 - (지역간 건축시장 차별화) 주택매매시장과 신규분양시장에서 지역별 차별화가 진행됨에 따라 주택 신규 수주에서도 격차 확대가 예상
 - 2017년 하반기 이후 수도권은 주택매매시장은 상승기에 진입한 반면, 지방은 하락기에 진입하면서 2019년 10월까지 격차가 확대됨
 - 또한 수도권 내에서도 서울 인접지역은 상승세를 이어가거나 보합세를 보인 반면 비인접지역은 하락세로 전환되었고, 지방에서도 광역시과 기타 지방간의 격차가 확대·유지될 것으로 전망됨
 - 이러한 격차 확대가 신규 수주에도 영향을 미쳐 지역 간 건설경기 격차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방권, 주택건설을 주력으로 하는 건설사의 실적 악화가 우려됨
 - (토목사업 신규 수주기회 확대) 2020년 중앙정부의 SOC 예산 확대와 더불어 지자체의 SOC 및 공공기관의 투자, 민자사업 확대 등을 고려할 때 토목사업에 대한 신규 수주기회가 확대될 전망
 - 다년간 진행되는 토목사업의 특성상 신규사업의 수주기회 확대가 향후 건설경기에도 영향을 미침
 - 2020년 중앙정부의 SOC 예산 중 신규사업 예산 비중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여 신규사업 수주기회가 확대될 것임
 - 이와 더불어 공공기관 및 민자사업자의 토목부문 투자도 2019년에 이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토목부문에서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 (해외 사업기회 확대) 2020년 중동국가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신규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어 해외시장에서 국내 기업들의 사업기회 확대가 기대
 - 사우디아라비아의 국가개발 프로젝트 발주가 예상되며, 카타르 등에서는 LNG 개발프로젝트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
 - 또한 최근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등 중동 국가들이 원유를 생산하는 업스트림뿐만 아니라 다운스트림 관련 투자도 확대될 전망이다
 - 한편 아랍에미리트와 이란 등의 국가에서 대규모의 새로운 유전이 발견됨에 따라 향후 개발 가능성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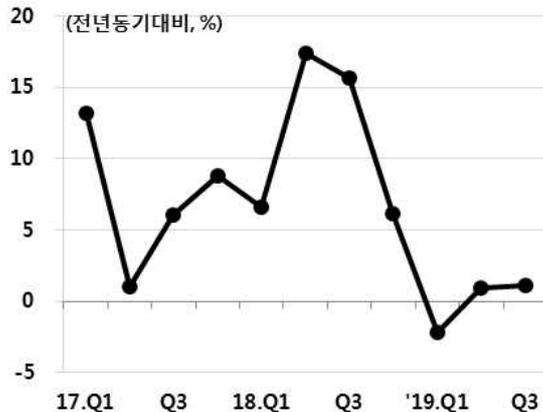
② ICT 제조업

반도체,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패널 모두 전년도의 기저효과와 더불어 글로벌 불확실성 완화, 5G 본격 도입, OLED 시장 확대 등 요인으로 소폭 회복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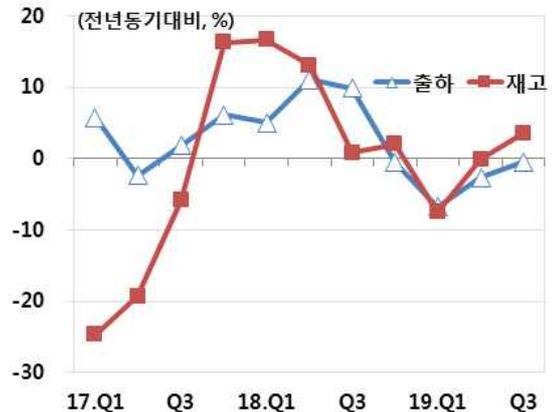
- (2019년 경기 동향) 반도체,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등 3대 주력품목 부진으로 생산 및 출하 지수가 하락했으나, 최근 소폭 회복되는 모습
 - (생산 및 재고·출하) 생산 및 출하 모두 감소하다, 최근 소폭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며 부진세 다소 완화
 - 생산지수 증감률은 1분기 △2.2%에서 2분기와 3분기에 각 0.9%, 1.1%로 소폭 증가했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
 - 재고지수 증가율은 3분기 증가세로 전환했으며, 출하증가율은 지속적으로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이거나 감소폭은 줄어드는 추세
 - (부문별 경기) 반도체,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등 3대 주력품목 모두 부진 지속
 - 반도체 : 2018년도 기저효과, 공급 증가로 인한 단가하락, 수요둔화 등으로 인한 메모리 반도체 중심의 부진 지속
 - 스마트폰 : 해외생산 증가, 글로벌 스마트폰 성장 둔화 등으로 감소세 지속
 - 디스플레이 : OLED 패널 시장은 수요회복 중이나, LCD 패널 시장은 공급과잉에 따른 단가하락 등으로 인해 역성장 지속

< ICT제조업의 생산, 출하, 재고 변동 >

(생산지수 증감률)



(출하 및 재고지수 증감률)



자료 :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주 : 생산, 출하, 재고 지수 증감률은 전년동기대비 기준.

- (2020년 전망) 반도체,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패널 모두 전년도의 기저효과와 더불어 글로벌 불확실성 완화, 5G 본격 도입 등 요인으로 소폭 회복 전망
 - (경기 여건) 글로벌 경기 소폭 회복, 미·중 무역분쟁 부분합의로 인한 글로벌 불확실성 완화 등 시장 여건 개선
 - 다만, 브렉시트 및 미·중 전면적 무역합의에 대한 불확실한 향방, 글로벌 교역 부진 지속 등 요인으로 시장의 회복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 (생산, 수출) ICT 산업 생산 및 수출 모두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
 - 2019년 생산 및 수출 감소에 따르는 기저효과와 더불어 4차 산업혁명 분야 확대 등 요인으로 생산과 수출 모두 증가하는 모습을 보일 전망
 - 다만, 미국 정보통신(IT)업계 기업 반독점 조사, 중국업체의 추격, 해외생산 증가 등 국내 ICT 시장의 부정적 요인 존재
 - (품목별) 반도체, 스마트폰 시장은 5G의 본격 도입으로 인해 소폭 회복될 전망이며, 디스플레이는 OLED의 시장 확대에 의한 성장 기대
 - 반도체 : 낸드플래시 중심의 메모리 반도체 가격 회복, 세계 주요국의 5G 본격 도입, 클라우드 컴퓨팅 및 IoT(사물인터넷) 투자 증대 등에 힘입어 수요 회복 예상, 시스템 반도체의 성장 또한 본격화 예상
 - 스마트폰 : 중저가 스마트폰 확대 등으로 인한 5G 스마트폰 수요 환산, 폴더블 및 프리미엄폰 카메라 경쟁 등 변화로 스마트폰 시장 회복 기대
 - 디스플레이 패널 : OLED 패널 시장 확대에 의한 회복이 기대되나, 중국의 OLED 패널 투자 확대 등 글로벌 경쟁 심화 우려

< ICT제조업 전망 >

구 분	2018	2019(E)	2020(E)
생 산 (조 원)	366 (6.6%)	322 (△12.0%)	328 (2.0%)
수 출 (억 달러)	2,203 (11.5%)	1,780 (△19.2%)	1,871 (5.1%)
수 입 (억 달러)	1,071 (4.9%)	1,084 (1.2%)	1,115 (2.9%)

자료 : 잠정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전망치는 현대경제연구원.

주1) ()안은 전년대비 증감률.

2) ICT제조업은 정보통신방송기기 품목을 의미.

- (주요 현안) 5G 융합서비스 개발, 중저가 스마트폰 경쟁, ICT 기반 맞춤형 구독경제 확대 등이 2020년 ICT 산업의 주요 현안으로 부상할 전망
 - (5G 융합서비스 개발) 5G가 단순 통신영역이 아닌 자율주행차, 실감콘텐츠 등 융합의 영역으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
 - 2019년 4월 한국의 글로벌 최초 5G 스마트폰 서비스 상용화 이후 미국, 스위스, 영국, 중국 등 세계 각국에서 5G 서비스 상용화를 시작, 2020년에는 더 많은 국가가 5G 서비스를 본격 도입할 것으로 예상
 - 현재 국내외에서 5G 기술을 자율주행, 원격 로봇·드론, 스마트공장·시티, 실감콘텐츠, 디지털 헬스케어 등에 적용하려는 노력을 진행 중임
 - 특히 자율주행차의 경우 시범운행이 진행될 예정이며 점차 상용화에 다가갈 것으로 전망
 - (중저가 스마트폰 경쟁) 전 세계적으로 가격은 저렴하지만, 기술과 품질은 고급형에 못지 않는 중저가 보급형 스마트폰 경쟁이 본격화
 - 최근 중국 스마트폰시장이 중저가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인도 등 신흥시장에서도 중국 중저가 스마트폰이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음
 -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들 또한 ODM(제조사개발생산) 방식으로 중저가 스마트폰을 외부 제작자에 맡기는 등 원가를 낮추는 노력을 할 것으로 예상
 - 이러한 중저가 스마트폰에도 5G, 트리플 카메라 등 기술이 적용되고 있어 치열한 경쟁이 예상됨
 - (맞춤형 구독경제 확대)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ICT 기술을 기반으로 한 고객 맞춤형 구독서비스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
 - 동영상, 음악, 생활용품 등 특정 서비스나 상품에 대해 일정금액을 지불하고 주기적으로 이를 제공받는 구독경제가 우리 일상 전반에 자리잡고 있음
 - 향후 인공지능(AI)이나 빅데이터 등과 같은 ICT 기술을 활용해 고객별 성향을 파악해 최적화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
 - 글로벌 투자은행 크레디트스위스(Credit Suisse)에 따르면, 2015년 약 4,200억 달러 규모였던 글로벌 구독경제 시장규모가 2020년 약 5,3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

③ 자동차산업

제한된 세계 경기 회복 및 국내의 부진한 민간소비로 자동차 산업의 경기 둔화가 지속되나, 신차효과와 더불어 원화 약세 및 친환경차 수요의 증가세 유지 가능성 등이 둔화폭을 다소 완화

○ (2019년 동향) 자동차산업은 주요국 경기 둔화에 따른 수입수요 감소 등으로 둔화 국면

- (생산 및 재고·출하) 신차 생산에도 불구하고 수출 부진, 일부 업체 파업 등에 따라 자동차 생산, 출하지수 증가율은 2019년 3분기에 마이너스로 전환, 재고지수는 증가세를 지속

- 자동차 제조업의 생산지수와 출하지수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각각 2019년 1분기에 2.5%, 3.9%에서 3분기 $\Delta 0.5\%$, $\Delta 0.2\%$ 로 마이너스 전환
- 자동차 재고지수는 2019년 1분기 14.5%에서 3분기에 14.6%로 증가세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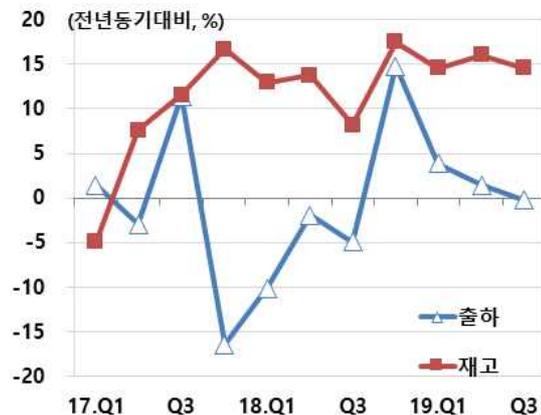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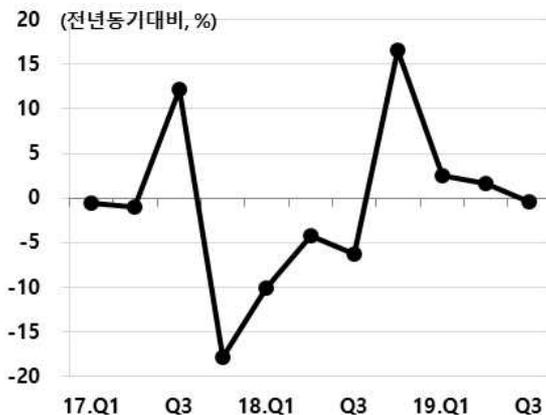
- (수출) 세계 경기 둔화에 따른 수요 감소와 중동·중남미 등 對 신흥국 수출 부진으로 수출증가율은 2019년 3분기 마이너스로 전환

- 자동차 수출 대수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2019년 1분기 1.4%에서 3분기 $\Delta 1.4\%$ 로 마이너스 전환¹⁾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의 생산, 출하, 재고 변동 >

(생산지수 증감률)

(재고 - 출하 증감률)



자료 :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주 : 생산, 출하, 재고지수 증감률은 전년동기대비 기준.

1) HS 코드 기준으로 분류, 한국자동차산업협회.

- (2020년 전망) 제한된 세계 경기 회복, 환경규제 강화 등으로 자동차 수출 수요가 둔화되고, 부진한 민간소비로 인해 내수수요 또한 둔화될 것으로 전망
 - (수출 수요 둔화) 2020년 세계 경기의 제한된 회복과 주요국의 환경규제 강화로 자동차 수출 수요의 감소가 예상되나, 원화 약세와 친환경차 부문에 대한 수요가 유지된다면 감소폭을 완화할 것으로 전망
 - 미약한 세계 경기 회복과 환경규제 강화 등으로 자동차 수출 수요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
 - 다만, 신차 출시 효과와 더불어 원화 약세가 유지된다면, 수출 수요 감소폭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예상
 - 또한, EU 배출가스 규제 강화와 주요국 정부의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급 등으로 친환경차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증가세를 보일 가능성 존재
 - (내수 수요 둔화) 민간소비 부진으로 인하여 자동차 내수 판매는 둔화
 -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 지속 및 저금리에 따른 이자 부담 완화 등은 민간 소비에 긍정적인 영향
 - 그러나 양질의 일자리의 제한적인 증가, 무역분쟁 등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소비심리 악화가 민간소비 개선을 제약
 - 한편, 수입 자동차 수요는 2019년 감소에 대한 기저효과와 가격 할인 경쟁 등으로 소폭 증가하나 증가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

< 자동차산업 전망 >

구 분	2018	2019(E)	2020(E)
생 산 (만대)	403 (Δ2.1%)	396 (Δ1.7%)	387 (Δ2.3%)
내 수 (만대)	155 (Δ0.5%)	153 (Δ1.3%)	151 (Δ1.3%)
수 출 (만대)	245 (Δ3.2%)	243 (Δ0.8%)	239 (Δ1.6%)
수 입 (만대)	26 (11.8%)	22 (Δ15.4%)	23 (4.5%)

자료 : 실적치는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수입자동차협회. 전망치는 현대경제연구원.

주1) ()안은 전년대비 증감률.

2) 내수는 국산차 출고 기준, 수출·수입은 통관 기준.

- (주요 현안) 2020년 자동차산업은 글로벌 신차 수요 정체, 주요국 환경규제 강화, 국가간 자동차 관세 분쟁 등이 이슈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
 - (글로벌 신차 수요 정체) 선진국의 이미 높은 자동차 보급률과 더불어 차량 공유 서비스의 확산 등으로 신차 수요는 지속적으로 둔화될 전망
 - 차량 구매력이 높은 주요 선진국 내 자동차 보급률은 이미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어²⁾ 신차 수요가 크게 늘기 어려운 상황
 - 게다가 20~30대층을 중심으로 차량 공유 서비스 이용 등이 확산되며 신규 차량에 대한 수요가 둔화
 - 완성차 업체는 주요국 신차 수요의 둔화에 따라 구조조정³⁾을 진행하며, 미래 모빌리티 기술과 서비스(자율주행, 공유 차량 서비스 등)에 대한 투자 확대
 - (주요국 환경규제 강화) EU와 중국 등 주요 자동차 시장에서의 배기가스 배출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기존의 내연기관차 제조 및 판매업체의 부담 가중
 - EU는 2019년 4월 유럽 시장에 신규 출시되는 승용차 및 소형 자동차의 CO2 배출량 기준을 강화하는 규제를 채택, 2020년 1월부터 시행
 - 배출목표를 초과하는 제조업체는 초과에 대한 할증료가 부과되어, 내연기관차 제조 및 판매업체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
 - 중국 또한 강화된 배기가스 배출 규제를 전국적으로 도입함에 따라 기준에 적합한 차량 생산 및 기존 생산분의 재고 소진을 위한 비용 증가
 - (국가간 자동차 관세분쟁) 미·중, 미·EU, 한·미 등 국가간 자동차 관세 분쟁 발생 가능성이 시장 불확실성 요인으로 작용
 -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수입 자동차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
 - 특히 미국이 만성적인 자동차 무역 적자를 기록하는 EU, 한국, 일본 시장에 대한 불만을 지속적으로 제기할 가능성 존재
 - 관세 부과가 현실화되지 않을 가능성도 상존하지만, 이러한 불확실성 요인이 산업 투자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

2) 미국의 차량 보급률은 2017년 84.7%, 2018년 86%, 독일은 2017년 60.6%, 2018년 61.3%, 일본은 2017년 60.2% 2018년 60.5% 등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세계자동차 통계).

3) GM은 전 세계 공장 7군데를 단계적으로 폐쇄하며 대규모 감원을 시행, 폭스바겐은 2023년까지 사무관리직 7,000여명을 감원, 도요타는 임원 수 축소와 간부직급 통폐합 등의 구조조정을 시행(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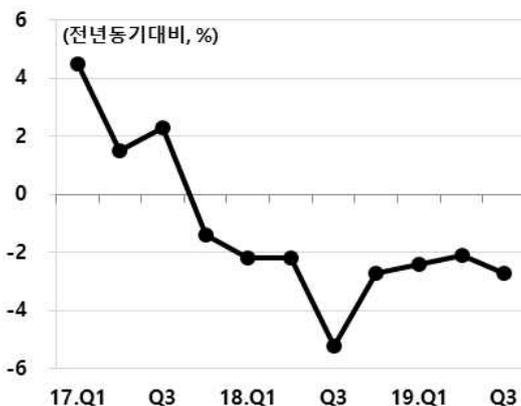
④ 철강산업

2020년 철강 산업은 주요 수요 산업 부진으로 철강재 내수 수요 및 생산이 모두 감소하며 불황 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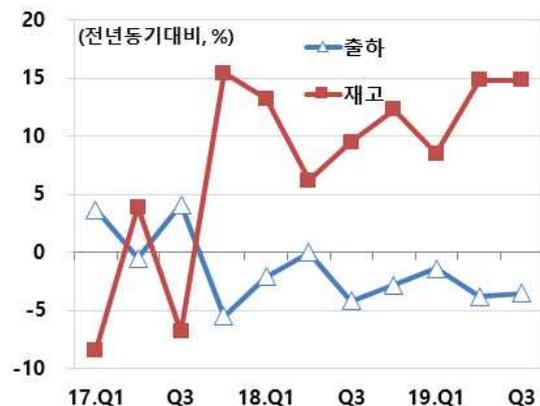
- (2019년 경기 동향) 생산과 수출이 모두 감소하며 경기 불황 국면이 지속
 - (생산 및 재고·출하) 2017년 4분기 이후 생산과 출하 감소가 지속되고 재고가 증가하는 등 철강산업 경기가 침체 국면이 지속되는 모습
 - 철강 생산지수 증가율은 2017년 4분기 이후 8분기 연속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하며 하락세를 지속
 - 출하지수 또한 감소 추세가 지속되고 재고 증가세가 확대되면서 철강 산업은 불황 국면이 지속
 - (수출) 세계 경제 성장세 둔화 및 보호무역주의 여파로 철강 수출이 감소
 - 2019년 3/4분기 누적 철강 수출은 물량기준으로는 전년동기간대비 3.5% 감소했으며, 금액기준으로는 전년동기간대비 9.5% 감소⁴⁾
 - 세계 경제 성장세 둔화 및 보호무역주의 여파로 세계 철강 수입수요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철강 수출이 감소

< 1차 철강 제조업의 생산, 출하, 재고 변동 >

(생산지수 증감률)



(출하 및 재고지수 증가율)



자료 :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주 : 생산, 재고, 출하지수 증감률은 전년동기대비 기준.

4) MTI코드 61 기준, 한국무역협회.

- (2020년 전망) 세계 철강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국내 주요 수요산업인 건설·자동차 산업의 불황이 지속되면서 철강 생산은 소폭 감소할 전망
 - (수요 소폭 감소) 주요 수요산업의 부진 지속으로 내수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수출은 감소 추세를 벗어날 것으로 전망됨
 - 건설 투자 감소, 자동차 산업 부진 등 주요 수요산업의 불황으로 국내 철강 수요가 부진할 것으로 예상됨
 - 다만, 주요 수요산업 중 하나인 조선업 생산이 증가하면서 회복하는 모습을 보임에 따라 내수 수요 감소폭을 완화할 것으로 예상
 - 세계 철강 수요 소폭 증가 및 전년도 수출 감소에 따른 기술적 반등 영향으로 철강 수출은 전년대비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
 - (공급 소폭 감소) 수요 둔화로 철강 생산과 수입이 모두 감소할 것으로 전망
 - 내수 수요 감소 및 전년도 수입 증가에 따른 기술적 반락으로 철강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
 - 수출이 소폭 회복됨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주요 수요산업 부진으로 철강 생산은 소폭 감소할 전망

< 철강산업 전망 >

(단위: 백만 톤)

	2018	2019(E)	2020(E)
총수요	84.1 (△4.4%)	83.6 (△0.5%)	83.0 (△1.1%)
내수	53.7 (△4.6%)	53.7 (0.0%)	52.9 (△1.5%)
수출	30.4 (△4.1%)	29.9 (△1.5%)	30.1 0.5%
총공급	84.1 (△4.4%)	83.6 (△0.5%)	83.0 (△1.1%)
생산	75.2 (△2.5%)	73.9 (△1.7%)	73.9 (△0.1%)
수입	8.9 (△18.3%)	9.7 (9.0%)	9.1 (△6.0%)

자료 : 실적치는 한국철강협회, 전망치는 현대경제연구원.

주 : ()안은 전년대비 증감률.

- (주요 현안) 글로벌 철강 공급 과잉, 철광석 가격 안정, 친환경성 확보 등이 주요 현안이 될 전망
 - (글로벌 철강 공급 과잉) 인도 등 아시아 신흥국 철강 생산 설비 증설 및 중국의 철강 산업 구조조정 마무리 등으로 글로벌 철강 공급 과잉 심화
 - 인도 등 아시아 신흥국의 철강 생산 설비 증설로 신흥국의 철강 생산이 증가하는 추세
 - 중국이 과잉생산능력을 조정하고자 2016년부터 시행해 온 철강 산업 구조조정이 마무리되면서 최근 중국의 공급량이 증가세로 돌아선 상황
 - 반면 세계 경제 성장세 둔화 등으로 세계 철강 수요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글로벌 철강 수급은 공급 과잉 문제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
 - (철광석 가격 안정) 철광석 공급 차질이 완화됨에 따라 급등했던 원재료 가격이 안정되면서 철강 업계의 마진 스프레드 개선 가능성
 - 2019년 초 발생한 세계 최대 철광석 광산업체인 브라질의 발레(Vale)사의 댐 붕괴 사고로 철광석 생산 차질이 발생하면서 급등했던 철광석 가격이 최근 생산 차질이 완화되면서 안정되는 추세
 - 원재료인 철광석 가격이 급등한 반면 철강재 가격 상승폭은 낮아 마진 스프레드가 축소되었으나, 최근 원재료 가격이 안정되면서 마진 스프레드가 개선될 가능성
 - (친환경성 확보) 세계적인 환경보호 인식 확대에 따라 철강 생산 과정부터 사용, 폐기, 재활용까지 제품 전 주기에 걸친 친환경성 확보 노력이 강화
 -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폐기물 등 환경보호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국내에서도 미세먼지 절감 문제가 대두되면서 철강 업계에도 친환경이 강조
 - 철강 산업은 생산 과정에서 많은 자원과 에너지가 투입됨에 따라 오염물질 다배출 산업으로 인식되면서 최근 철강 산업에 대한 환경 개선 요구가 강화
 - 이에 철강 업계는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친환경위원회를 발족, 2021년까지 약 1.5조 수준의 환경설비투자를 계획
 - 또한 철강업계는 환경규제 준수를 넘어 철강이 타소재 대비 재활용이 용이한 점 등을 바탕으로 철강 생산과정 뿐만 아니라 사용, 폐기, 재활용에 이르는 전 주기에 걸쳐 소재의 친환경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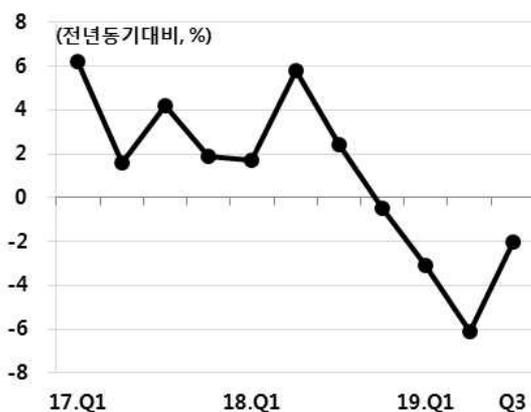
⑤ 석유화학산업

글로벌 공급과잉, 중국 성장 둔화, 내수 부진 등으로 침체 국면이 지속되겠으나, 세계 경기 회복 등의 모멘텀은 침체를 다소 완화

- (2019년 경기 동향) 글로벌 수요둔화, 수출단가 하락으로 수출 감소세가 지속 되면서 출하가 감소하고 재고가 확대되는 등 침체 국면
 - (생산 및 재고·출하) 생산 감소세가 지속 중인 가운데 3분기 이후 산업내 재고 조정에 따라 재고가 감소하고 출하가 다소 증가하는 모습
 - 생산지수 증가율(전년동기대비)은 2019년 1분기 △3.1%에서 2019년 3분기 △2.0%까지 감소세가 지속
 - 재고 증가율은 2019년 1분기 16.0%, 2분기 7.5%에서 3분기 △0.3%로 감소하는 모습이며, 출하 증가율은 3분기 증가세로 반등
 - (수출) 중국 등 주요 수출국 시장의 수입수요가 축소되며 수출 감소세 지속
 - 중국, 인도 등 주요국 수출시장의 수입수요 축소로 석유화학제품⁵⁾ 수출은 2019년 3분기까지 누적기준(약 323억 달러) 전년동기대비 약 14.3% 감소
 - 석유화학제품 제1의 수출시장인 중국 수출은 2019년 3분기 누적기준(약 138억 달러) 전년동기대비 약 14.2% 감소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생산, 출하, 재고 변동 >

(생산지수 증감률)



(출하 및 재고지수 증감률)



자료 :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5) MTI 21 석유화학제품 코드 분류 기준.

- (2020년 전망) 글로벌 공급과잉, 중국 성장 둔화, 내수 부진 등의 요인으로 인해 경기 침체 국면 지속 전망
 - (생산) 해외 신증설 규모 확대, 내수 부진 등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생산은 감소가 예상되나 기저효과의 영향으로 감소폭은 축소될 전망
 - 중국을 중심으로 신규 증설 물량 공급확대 및 글로벌 수급 회복이 지연될 것으로 전망되는 등 경기 하방 리스크 요인이 산재해 있는 상황
 - 특히, 전반적인 수요 회복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국제유가의 상승은 제품 스프레드 축소에 따른 원가 경쟁력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수출) 세계 경기 회복이 수출 증가를 견인하겠으나, 중국 성장 둔화, 공급과잉 등으로 증가폭은 소폭에 그칠 전망
 - 세계 경기 둔화세 개선은 수출 호조세로 작용하겠지만 글로벌 에틸렌 수요 증가율이 공급 증가율을 하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반등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 특히, 중국 수출의존도(1~9월 누계 수출기준 42.7%)가 높은 국내 석유화학산업은 중국 자급률 확대, 중동 및 미국산 생산 증가에 따른 공급과잉으로 수출 확대는 제한적일 전망
 - (내수) 국내 경기와 전방 수요산업의 회복이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내수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
 - 전방 수요산업인 자동차, 디스플레이, 건설 등의 수요 증대가 미약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내수는 전년대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석유화학산업 전망 >

구 분	2018	2019(E)	2020(E)
생 산 (만 톤)	2,162 (△2%)	2,097 (△3%)	2,055 (△2%)
수 출 (만 톤)	1,143 (0%)	1,147 (0%)	1,158 (1%)
수 입 (만 톤)	106 (1%)	109 (3%)	120 (10%)
내 수 (만 톤)	1,126 (△3%)	1,059 (△6%)	1,016 (△4%)

자료 : 실적치는 한국석유화학협회, 전망치는 현대경제연구원.

주1) ()안은 전년대비 증감률.

2) 석유화학 산업 전망은 합성수지, 합섬원료, 합성고무의 합으로 산출.

6) '18~'23년 연평균 세계 에틸렌 수요 증가율 3.8%, 공급 증가율 4.6%, 『석유화학산업 동향 및 향후 전망』, 한국석유화학협회, 2019년 6월 13일 자료 인용.

- (주요 현안) 2020년 석유화학산업은 중국발 공급과잉 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 원료 다변화 전략이 주요 이슈로 부각
 - (중국발 공급과잉 확대) 중국발 대규모 증설은 원유 기반의 나프타크래커 설비(NCC : Naphtha Cracking Center) 중심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 공급과잉에 따른 부정적인 수급 여건이 예상됨
 - 중국은 ‘중국제조 2025’, 대규모 인수합병(M&A) 등을 통해 정부 주도의 석유화학산업 육성 정책을 지속 추진 중에 있음
 - 특히, 중국은 파라자일렌(PX) 증설 프로젝트(‘19년~’20년 : Hengli PC, Sinopec Hainan, Zhejiang PC 등) 추진이 예정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중국내 석유화학산업의 자급률 수준도 크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 글로벌 기업을 중심으로 석유화학 사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산업간 융합이 확산될 전망
 - Dow Dupont(美), BASF(獨) 등 글로벌 석유화학 기업들은 원유 중심의 범용제품 기반에서 전자소재 등 스페셜티(Specialty) 제품 개발을 통한 사업 다각화에 주력
 - 친환경 소재,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신소재 개발, 바이오 등의 분야까지 산업간 융합이 활발하게 이뤄지면서 시장 규모도 확대될 전망
 - (원료 다변화 전략) 중장기적으로 원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 마련의 중요성이 부각될 것으로 전망
 - 국내 석유화학산업은 원유 기반의 나프타크래커 설비(NCC : Naphtha Cracking Center) 중심의 생태계로 유가 및 경기 변동성에 취약
 - 이에 따라, 나프타 이외에 공급 원료(Feedstock)를 활용하는 원료 다변화 전략의 중요성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연구개발(R&D), 해외투자 확대를 통한 원가 경쟁력 강화 노력이 절실한 상황
 - 이를 위해 국내 기업들은 설비 운용의 운영성 강화, 인프라 구축 등을 목표로 2023년까지 총 26.2조 원(국내 15.6조 원, 해외 10.6조 원) 규모의 투자를 실행할 예정⁷⁾

7) 『석유화학산업 동향 및 향후 전망』, 한국석유화학협회, 2019년 6월 13일.

⑥ 조선업

장기간 지속된 세계 경기의 미약한 회복 및 글로벌 교역 불안 요인 상존 등으로 조선업 경기 개선 수준은 역시 소폭에 그칠 전망

○ (2019년 경기 동향) 조선업은 세계 경기 회복세 미약 및 글로벌 교역 부진 등으로 회복이 미약하게 진행되는 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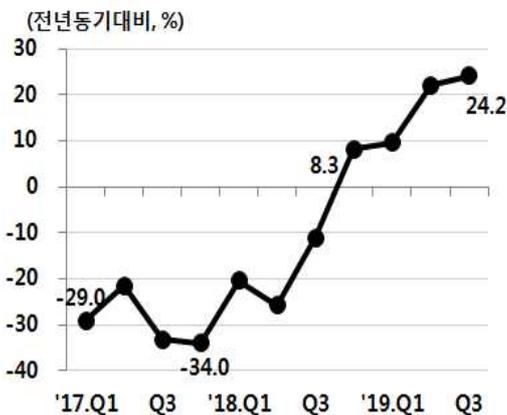
- (선박 생산) 조선업 생산은 장기간 감소에서 증가로 반등

- 2013년 2분기부터 22분기 연속 마이너스였던 조선업(선박 및 보트 건조업) 생산지수 증감률은 2018년 4분기 플러스로 전환
- 조선업 생산지수 증감률(전년동기대비)은 2018년 4분기 8.3%에서 2019년 3분기 현재 24.2%로 증가폭 확대

- (선박 수주) 국내 조선사들의 신규수주는 감소했으며 신조선가지수는 상승세 둔화

- 2019년 신규수주량은 1~10월까지 누적으로 530만 CGT⁸⁾를 기록한 것을 고려하면 2018년 연간 1,310만 CGT 대비 큰 폭의 감소가 예상됨
- Clarkson 신조선가지수는 2016년 123.0p를 기록한 이후 상승세를 지속하며 2019년 월평균 130.5p를 기록

< 선박 및 보트 건조업 생산지수 증감률 >



자료 :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주 : 생산지수 증감률은 전년동기대비 기준.

< 신규수주량 및 신조선가지수 >



자료 : Clarkson.

8) 표준화물선 환산 톤수 (Compensated Gross Tonnage).

- (2020년 전망) 신규 수주, 건조 단가 및 수출 등 전반적인 측면에서 개선되지만 그 강도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
 - (신규 수주 증가) 신규 수주량은 반등하겠지만 과거 대비 크지 않은 수준
 - 국내 조선사가 강점을 갖고 있는 LNG 선박 수주 증가 등의 요인으로 수주 반등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
 - 2019년 세계 교역 부진으로 감소했던 선박 수주는 2020년에는 글로벌 경제 및 소폭 회복 및 기저효과 등의 영향으로 증가하여 8.9백만 CGT가 예상됨
 - (건조 단가 개선) 선박 건조 단가는 상승세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
 - 중국 철강산업의 구조조정 영향으로 후판가격 상승세가 유지되는 점은 건조 단가 상승세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 건조 단가는 2016년부터 이어온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나 금융위기 이전 호황기 수준(180~190p)에 크게 미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됨
 - (수출 증가) 선박 수출은 2020년에 증가폭 확대 예상
 - 환경규제로 인한 신조선 주문 증가,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LNG 선박 수주 증가 등의 영향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
 - 반등하고 있는 선박 수주의 영향으로 2020년 선박 수출은 2019년 대비 15.0% 증가한 267억 달러로 전망

< 조선업 전망 >

구 분	2018	2019(E)	2020(E)
신규수주량 (백만 CGT)	13.1 (67.9%)	6.5 (△50.4%)	8.9 (37.5%)
신조선가지수 (p)	130 (5p)	131 (1p)	133 (2p)
수출규모 (억 달러)	213 (△49.5%)	233 (9.2%)	267 (15.0%)

자료 : 신규수주량과 신조선가지수는 Clarkson, 수출규모는 한국무역협회, 전망치는 현대경제연구원.

주 : ()안은 전년대비 증감률, 수출규모는 전체 선박수출 기준.

- (주요 현안) 2020년 조선업은 유가 하향 안정화, IMO 환경 규제 시행, 업그레이드 기로에 선 중국 조선업 등이 주요 이슈로 부각
 - (유가 하향 안정화) 국제유가의 하향 안정으로 해양플랜트 발주 감소 및 첨단 친환경 선박 수주 부진 등 지속 예상
 - 불안한 회복세의 글로벌 경기로 인한 수요 둔화 및 세일오일 생산 증가로 인한 공급 증가 등의 영향으로 유가 흐름은 상당 기간 하향 안정화가 예상됨⁹⁾
 - 저유가 지속으로 해양플랜트 발주 및 첨단 친환경 선박 수주는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며 상선부문의 수주 경쟁은 심화될 것으로 예상
 - (IMO 환경 규제 시행) 친환경 역량에 따라 선사의 생존 여부가 좌우될 수 있는 연료·정화시스템의 전면 개편 등의 고강도 환경 규제 시행
 - IMO(국제해사기구)는 2020년초부터 황산화물 배출 기준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환경 규제를 시행
 - 개방형 Scrubber(오염물질 저감장치) 입항이 제한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를 장착하여 환경 규제에 대응하고자 하는 국내 선사들은 어려움이 우려됨
 - 배기가스 감축 기술에 필요한 자본조달을 위해 글로벌 해양금융시장 확대도 예상되며 핀테크 활용도 역시 확산될 것으로 기대
 - (업그레이드 기로에 선 중국 조선업) 글로벌 조선 강국으로 도약하고자 하는 중국 조선산업의 시도가 진행되는 가운데 친환경 대응 기술력 한계 가시화 예상
 - 중국 조선산업의 주력은 여전히 저기술 중심의 벌크선이지만, 최근 중국 최대 조선 집단의 합병, 대형 업체들의 고부가선으로의 사업 확장 시도 가속화 등 업그레이드 움직임 포착
 - 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요 증가 및 해외 선주들의 복잡한 요구 등에 대한 대응 측면에서 중국 조선업의 기술력 한계가 존재
 - 또한 중국 해안도 2019년부터 배출규제해역(ECA : Emission Control Area)으로 지정되어 중국 조선소들의 벌크선 건조 비용 증가 및 기간 지연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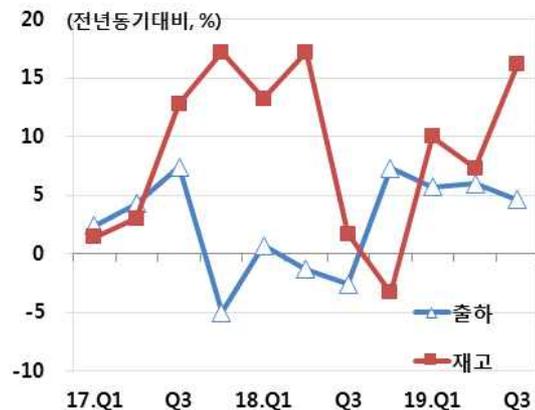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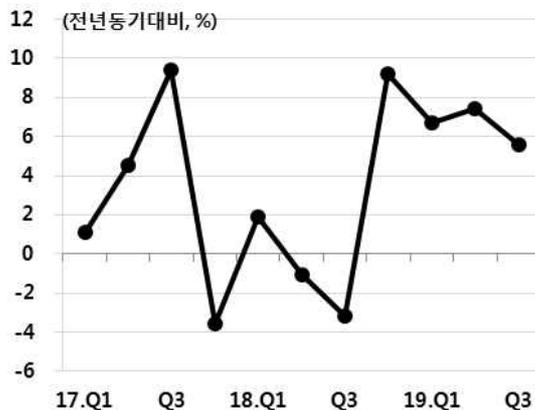
9) 국제유가 전망 기관인 IHS Markit에 따르면 배럴당 국제유가는 2018년 60달러 후반에서 2019년에는 60달러 초반, 2020년에는 50달러 중반대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

⑦ 기계산업

2020년 기계산업은 일부 전방 산업(ICT)의 업황 소폭 회복, 설비투자 플러스 전환, 기저효과 등으로 소폭 개선될 전망

- (2019년 경기 동향) 대내외 경기 여건 악화, 전방 산업 부진, 설비 및 건설투자 부진 등으로 기계 산업의 생산, 출하 증가율이 하락세를 보이고 수출·입 증가율도 모두 마이너스 기록
 - (생산 및 재고·출하) 생산 및 출하 증가율이 하락세를 보인 반면 재고 증가율은 증가세
 - 설비 및 건설투자 부진, 반도체 경기 악화 등으로 일반기계 생산 증가율이 하락세를 보임
 - 일반기계의 출하 증가율은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재고 증가율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침체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
 - (수출입) 대외 경제 여건 악화로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전환, 전방 산업 및 내수 부진과 설비투자 수요 약화로 수입 증가율 마이너스 폭은 더욱 크게 확대
 - 일반기계의 수출은 2019년 9월까지 누적 기준 전년동기간대비 $\Delta 3.2\%$, 수입은 $\Delta 16.6\%$ 로 감소
 - 중국, 미국, 인도 등 주요 시장의 수출 증가율은 동기간 각각 $\Delta 13.5\%$, 0.6% , $\Delta 14.1\%$ 로 크게 하락하면서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전환
 - 국내에서는 반도체 및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 기계를 중심으로 수요가 줄어들면서 수입 감소를 견인함

< 일반목적용 기계 제조업의 생산, 출하, 재고 변동 >
(생산지수 증감률) (출하 및 재고지수 증감률)



자료 :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주 : 생산, 출하, 재고 지수 증감률은 전년동기대비 기준.

○ (2020년 전망) 일부 전방 산업의 업황 소폭 회복, 설비투자 플러스 전환, 기저효과 등으로 기계 산업은 소폭 개선될 전망

- (기계수주) 2020년 대내외 경제 여건이 2019년에 비해 소폭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설비투자 플러스 전환, 일부 전방 산업 업황 개선에 힘입어 일반기계 수주는 플러스로 전환될 전망

- 기저효과와 더불어 반도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정부의 혁신성장 기조 지속 등으로 설비투자는 플러스로 전환될 전망
- 민간 건설 경기 부진세는 지속될 전망이나 SOC투자 확대 등 공공부문 건설투자가 늘어나면서 건설기기 관련 수요가 소폭 늘어날 전망
- 저금리 기조로 투자 여건은 개선될 가능성이 있으나 경기 불활실성에 따른 기업의 투자 심리 위축이 이를 상쇄

- (수출 증가폭 둔화) 반도체 경기 회복, 기저효과 등으로 일반기계 수출은 소폭 증가할 전망이며, 설비투자 회복으로 수입 증가율도 플러스로 전환

- 글로벌 경기 및 교역이 소폭 개선되는 가운데 주요국의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이 예상되고 있어 수출의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될 전망
- 글로벌 반도체 경기 개선, 5G, 폴더폴 스마트폰 수요 증가로 관련기기 수출이 늘어날 전망
- 국내 설비투자 회복으로 관련 수요가 늘어나면서 수입도 플러스로 전환

< 기계산업 전망 >

구 분	2018	2019(E)	2020(E)
기계수주 (조 원)	18.8 (0.5%)	17.6 (△6.5%)	18.2 (3.5%)
수 출 (억 달러)	533 (10.7%)	509 (△4.5%)	539 (6.0%)
수 입 (억 달러)	394 (△7.4%)	327 (△17.0%)	332 (1.5%)

자료 : 실적치는 통계청, 한국기계산업진흥회, 전망치는 현대경제연구원.

주1) 기계수주액은 선박제외이며, 통신기계, 전기기계, 도로주행차량, 기타수송기계, 의료 및 정밀 측정제어기기, 철조구조물 등은 제외.

2) 수출과 수입은 일반기계 기준이며, ()안은 전년대비 증감률.

- (주요 현안) 2020년 기계산업은 소·부·장 산업경쟁력 강화 본격화, 산업용 로봇의 진화, 재제조 산업 부상, 협동로봇(Collaborative Robot)의 확산 등이 이슈로 부각
 - (소·부·장 산업경쟁력 강화 본격화) 정부는 소재, 부품, 장비 산업경쟁력 강화 대책을 2019년 8월 5일에 발표하였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2020년 예산을 2배로 늘림
 - 일본 수출 규제, 제조업 경쟁력의 핵심요소로 인식 등의 배경으로 소재, 부품, 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대책을 발표
 - 소재, 부품, 장비 산업 경쟁력 제고를 지원하기 위해 실증 및 양산 테스트 베드 등에 1조 2,716억원의 2020년 예산을 편성하였고, 이는 2019년 6,699억원 보다 약 2배 증가한 규모임
 - (재제조 산업의 부상) 사용중이거나 수명이 다된 제품을 분해, 세척, 검사, 재조립 과정을 거쳐 새 제품과 동일하거나 더 나은 성능을 갖춘 상태로 만드는 재제조(remanufacturing) 산업이 부상
 - 재제조 산업은 신제품 대비 투입 에너지, 재료 등 자원 절감 효과가 매우 높고 신제품 가격 대비 약 50%~70% 저렴, 또한 친환경적이라는 큰 장점이 있음
 - 국내에서는 건설기계 분야 재제조 시장 활성화 활동을 전개하였고, 최근 지역 특성 산업으로 육성
 - (협동로봇의 확산) 산업용 로봇에 안전기능이 강화되어 인간과 같은 공간에서 공동작업이 가능한 협동로봇(Collaborative Robot)이 향후 로봇 산업의 주류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
 - 테크놀로지 분야 시장 조사 업체인 ABI 리서치에 따르면 협동로봇(Collaborative Robot) 시장 규모는 2019년 7.1억 달러에서 2030년 118억 달러로 성장할 전망
 - 현재 전체 산업용 로봇 시장의 협동 로봇 매출 비중은 2019년 5%에 불과하지만 2030년에는 23%까지 확대될 전망
 - BMW, GE, P&G 등 글로벌 제조기업들은 이미 다양한 공정에 협동로봇을 적용하여 자동화 영역을 확대

4. 시사점

첫째, 대외 불확실성의 리스크가 국내 경제로 전이되는 것을 차단하고 국내 경기 회복 도모를 위한 신중한 경제 정책이 요구된다.

- 재정정책은 경기진작에 최우선 목표를 두어야 하는 동시에 정확하고 효율적인 재정집행 능력이 필요함
 - 특히, 재정 투입의 대상 명확성, 지출 규모의 적절성, 효과 극대화 적시성 등을 통해 재정정책의 성과를 높여야 함
 - 재정정책의 무게 중심을 성장 분야로 옮겨가는 것이 시급해보이며, 이를 위해 신도시 건설, SOC 조기 착공 등을 통해 경제 전체의 투자율을 높여야 할 것임
- 또한 재정 정책의 효과를 올리기 위해 글로벌 추세인 법인세 인하, 투자 관련 세액 공제 확대 등 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정책이 병행될 필요가 있음

둘째, 수출 경기 회복을 위해 수출 품목 및 시장 다변화를 적극 추진하는 동시에 통상마찰방지에 주력해야 한다.

- 수출 품목 다변화 및 성장 잠재력이 높은 신규 시장에 대한 공략을 강화하는 등 지속적인 수출 발전 전략을 모색해야 함
 - 특히 중국으로의 수출이 부진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신흥시장 및 신사업 발굴 노력을 지속하여 특정 시장 및 품목에 대한 집중도를 완화함으로써 수출 산업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할 것임
 - 기존 주력산업의 혁신을 통하여 경쟁력을 높이고, 차기 주력 수출품 발굴 및 육성을 통해 수출 품목 다양화를 추구

- 보호무역 등 국제 교역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신통상환경 정책 및 전략이 필요
 - 국가간 통상마찰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정치 및 외교적 역량을 강화하고 불공정 무역조치 발생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최근 보호무역주의 강화 및 기술전쟁의 확산 등에 대응하여 주요 교역대상국의 우호적 파트너십 강화를 통해 통상마찰의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중요
 - 또한 자국 우선주의 등으로 인한 세계화의 역행이 지속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다자간 무역협상을 지지하는 글로벌 공조를 확대해야 할 것임

셋째, 민간 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기업 환경 개선에 정책적 비중을 높여야 한다.

- 정부 성장 전략인 혁신 성장이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투자 및 시장 진출입 관련 규제 완화, 신성장 산업 발굴 및 육성 등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
- 특히 민간 부문의 투자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기업 경영 여건이 악화될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경제 내 성장과 고용의 주체인 기업의 역동성을 제고할 수 있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함
- 산업별로 차이가 나는 경기 국면의 위치와 향후 방향성을 고려하여 산업별 맞춤 대책이 필요
 - 만성적 수요 부족에 대응하여 구조조정 시스템을 상시적으로 가동하고 기업의 유연성 및 효율성 확보에 주력해야 함
 - 한편 구조조정 압력에 직면해 있는 기업의 사업구조 개편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금융 및 세제상의 지원을 확대해야 할 것임

넷째, 건설투자 위축을 완화하기 위해서 SOC 조기착공과 공공주택 발주를 확대하고 시장의 혼란과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민간 주택 시장에 대한 기존 안정화 정책 기조는 유지될 필요가 있다.

- 공공주택 공급계획 추진과 생활형 SOC 투자 및 도시재생사업 확대 등 정부 프로젝트의 조기착공 지원 등을 통해 건설 투자 위축을 방지
- 수급 안정에 바탕을 둔 부동산정책 기조를 유지하되 경직적인 주택 공급 정책보다는 시장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정책 운용으로 지역별 수급 불균형을 완화해야 함
- 건설 기업들은 향후 국내 부동산 시장 둔화에 대비하여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 마련이 필요

다섯째, 국내외 산업 지형 변화에 대응하고 기존 주력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통해 신성장 동력을 찾기 위한 중장기 산업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 미래 신성장 산업에 대한 환상보다는 국내 주력 산업 경쟁력 제고를 통해 신기술을 융합하는 과정이 필요
 - 최근 언급되고 있는 새로운 기술 및 신성장 산업은 기초 소재, 기계, IT, 자동차 등 현재 주력 산업들을 근간으로 파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력 산업 경쟁력 제고를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
- 중장기적인 과학 기술 기본계획의 목표를 차질 없이 이행하되, 사회 및 경제적 변화에 따른 과학 기술 수요 변화도 적절히 고려하여 신성장 동력 산업을 발굴

- 신성장동력의 산업화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발굴, R&D 지원, 산업화 등 단계를 구분하고 단계별·세부 부문별 맞춤형 정책이 필요
- 또한 산업 발전 유형에 대응하는 맞춤형 패키지(R&D, 자원, 시장) 정책을 추진

2020년 산업 전망 참여 연구진

【총괄】	주원	이사대우	(juwon@hri.co.kr, 02-2072-6235)
	정민	연구위원	(chungm@hri.co.kr, 02-2072-6220)
【건설】	오준범	선임연구원	(jboh19@hri.co.kr, 02-2072-6247)
【ICT 제조】	민지원	연구원	(jwmin100@hri.co.kr, 02-2072-6211)
【자동차】	류승희	연구원	(shryu@hri.co.kr, 02-2072-6217)
【철강】	신유란	연구원	(yooran0111@hri.co.kr, 02-2072-6240)
【석유화학】	박용정	선임연구원	(yongjung@hri.co.kr, 02-2072-6204)
【조선】	홍준표	연구위원	(jphong@hri.co.kr, 02-2072-6214)
【기계】	정민	연구위원	(chungm@hri.co.kr, 02-2072-6220)